

나의 삶 · 나의 학문

김계곤

한글학회 부회장

1. 우리 말글 공부에 관심하게 된 동기

내가 어렸을 때의 꿈은 초등학교 교사였다.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광복 뒤에 부산사범학교 본과를 늦깎이로 졸업했다. 본과 3학년 때, 국어과를 담당하신 정신득 스승님의 수업을 통하여 우리 말글 공부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초등학교 교사로 발령이 날 무렵에 정신득 스승님께서 저에게 중학교 국어교사가 되는 것이 좋겠다고 하시면서 박관식 교장님(울산에 있는 초급중학교)을 소개해 주셨다. 그러나 나는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고 초등학교 교사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정신득 스승님의 권유를 거절했다. 그러자 되든 안 되든 한번 가 보라고 하셔서 그 이상 더 고집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박관식 교장님께 정신득 스승님의 추천서를 드렸더니 새 학년부터 근무하라는 응답을 받았다.

하루는 경남 도청 앞을 지나자 부산사범학교 교장으로 계셨던 강제호 스승님(그 때 학무국장으로 계셨다. 지금으로 말하면 경남 도교육감의 자리)을 우연히 만났다. 어느 학교로 발령이 났느냐고 하시기에 그 동안의 경로를 말씀 드렸더니 그러지 말고 부산 시내 초등학교에 근무하면서 남조선대학(지금의

동아대학교) 야간부에 들어가 대학 수학의 길을 택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시면서 지금 학무과에 들러 발령이 어디로 났는가 살펴보라고 하셨다. 나는 그 말씀을 듣고 선결음에 바로 학무과에 들러 부산사범학교 교감으로 계셨던 강삼영 스승님(학무과 장학관)을 만났다. 내가 인사를 드리자 반가워 하시면서 “김 군은 고향이 김해라서 김해 동광초등학교에 발령이 났다”고 하셨다. “제 고향은 김해가 아닙니다”라고 하고 강 스승님의 말씀을 전했다. 발령장이 이미 발송되었으면 도리가 없다고 하시면서 급히 살펴보고 발송이 안 되어서 다행이라고 하셨다. 그리고 수석으로 졸업한 김 군에 대한 대우가 그럴 수 없다면 부산 중앙초등학교로 고쳐 발령을 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지금 사정으로서서는 불가능한 일인데 사회 질서가 잡혀 있지 않았던 때라 그런 일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래서 울산에 갈까 말까 하던 갈림길에서 부산 중앙초등학교로 가게 된 것이다. 3학년 3반을 맡아서 정이 들고 열성껏 가르친 결과가 두드러지게 달라져 재미나는 교단 생활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그런데 학교 출근길에서 정신득 스승님을 매일 만날 수가 있었다. 문교부 검정시험이 있기 전의 일이다.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중등학교 국어과 교사 채용 시험이 있다고 알려 주시고 꼭 그 시험을 보라고 권하셨다. 그 이튿날 준비 공부에 필요한 10책을 적어 주셨다. 마음에 내키는 일은 아니었으나 스승님의 권하는 말씀에 따라 톱툰이 책을 읽고 겨울 방학에 응시했다. 원서를 낼 때 현직 교장선생님의 추천서를 내어야 했으므로 그 추천서를 받을 때 합격해도 초등학교에 근무한다는 다짐을 받아야겠다고 해서 구두로 서약을 했다. 그러나 내 속마음도 중등학교에 가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한평생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싶은 심정 그대로였기 때문이다.

시험 과목은 현대문, 고전문, 국어문법, 국문학사, 한문, 5과목이었고 수험하는 이들은 100여 명 중 자격증 없이 임시 교사로 중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국어과 담당 교사들이 대부분이었으며 초등학교 교사들은 그 수가 적었다. 하루 종일 시험을 보고 며칠 뒤 1차 발표가 났는데 28명이었다. 2차 면접 시험 전에 시험의 위상을 위해서 2차엔 대폭 떨어뜨릴 것이라고 예고하고 다만

1차에 합격한 이는 일선 교장만 채용하겠다고 발령한다는 약속을 했다. 그 다음날 최종 합격자 발표 전에 면접 시험이 있었다. 그 당시 출제한 분들이 면접을 했다. 고전문 출제는 허웅 스승님이 하셨는데 젊은 사람이 언제 그렇게 고전문을 공부했느냐고 하셨고 그 밖의 과목도 잇달아 성적이 좋다고 칭찬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내가 그 때 최종 합격자 10명 가운데 수석의 행운을 안았다. 시험이란 운수가 좌우하는 것이다. 제일 어렵게 생각한 과목이 한문이었는데, 내가 평소에 알고 있는 문제를 가려서 내듯 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나는 어느 시험이든 실력만으로 합격하기는 어렵다고 여겼다.

2. 전공분야를 국어학으로 정한 내력

정신득 스승님께서 앞으로 계속 허웅 스승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소개해 주셔서 그 뒤 줄곧 허웅 스승님의 알뜰한 지도와 보살핌으로 하여 구제 6년제 진해중학교에 전근했고 중고등학교 분리 때 부산제일상고(지금의 경남상고)로 전근했다. 그 때 동료직원들이 서울사범대학에 상당한 수가 적을 두고 있으면서 나에게 권했다. 6·25 동란으로 부산 피란살이하는 대학교에 적을 둔 것은 학습의 의욕보다도 학력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이었다.

그 때 허웅 스승님께서 부산대학으로 와서 강의를 받아야지 강의도 제대로 못 받는 대학에 가서 뭘 하겠느냐고 하셔서 서울대로 가지 않고 부산대학교 연장강의(국립대학은 야간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과정 1학년에 입학했다. 내가 근무한 학교와 대학교가 바로 한 울타리 안에 있어서 수강하기에 아주 편리했다. 그리고 전시하에 서울의 여러 대학이 거의 부산에 피란해 있었으므로 권위 있는 교수들의 출강이 많았다. 그래서 알찬 대학 과정을 밟을 수 있었다.

내가 3학년 과정을 밟고 있을 때 부산대학교 안에 국어국문학회가 조직되었다. 내가 초대 회장으로 있었고 연구 분야별 배정에서 정병욱 스승님께서 저에게 고전문으로 권하셨는데 허웅 스승님께서 국어학이라고 정해 주셔서

그 때부터 내가 전념하게 된 것이 ‘국어학’ 분야였다. 직장을 지키면서 대학 수학을 하고 있었을 때, 경남도에서 시행한 교사 채용 시험 자격은 중학교에 한정된다고 해서 문교부에서 처음 시행한 교사 검정고시에 응시했다.

그 당시 문교부가 부산시청에 있었고 수험장은 부산, 대전, 광주, 3지구였다. 국어과 응시자가 상당한 수였다. 최종 합격자가 아마 7명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 때 시험장이 처음 부산대학으로 통고 됐으나 영도 영선초등학교로 바뀌었다. 나는 그 통지서를 못 받고 부산대학으로 나가서 기다리다가 바뀐 수험장으로 가는데 부산시청 앞까지 전차로 가서 영도로 가는 전차를 갈아탈 때 영도점으로 건너가는 다리를 들었으면(하루에 몇 번 큰 배가 지나갈 수 있도록 다리의 일부분을 들었다가 내리는 일) 응시를 단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전차가 건너자 다리가 들어서 수험 시작 시간 5분 전에 도착했다. 그것은 바로 내 장래를 결정하는 갈림길이기도 했다.

문교부교사검정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에 또 허웅 스승님의 추천으로 부산 제일고등학교(지금의 경남고교)로 전근했고 5·16군사 정권이 들어서자 서울 보성고등학교로 옮기게 되었다. 허웅 스승님은 내가 부산대학 4학년 때 서울로 가셨고 나는 경남고에 재직하고 있을 때, 부산대학교 시간 강사로 나갔다. 보성고로 전근한 것은 나를 아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강재호 스승님께서 교장으로 계실 때였다. 그 때 허웅 스승님께서 스승님의 큰형님 병환으로 부산에 다녀가실 때 만나봤는데 부산에 있을 생각 말고 내일 나하고 함께 서울로 가자고 하신 말씀이 지금도 듣고 있는 듯 기억이 생생하다. 보성고에 근무하면서 한양대학교 강사로 출강한 것도 허웅 스승님의 주선이었고 인천교육대학교로 전근한 것도 허웅 스승님과 이강로 교수님과의 의논에서 성사가 된 것이다. 내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전근할 때마다 전근 승낙을 완강하게 거절하는 바람에 받아들일 학교장들과 말썽이 많았다. 그것은 내가 뛰어난 실력이나 재주가 있어서가 아니고 재직했던 학교장이 나에게 쏟은 사랑 때문이었다.

3. 내가 지은 대표스런 두 책

나는 요즘 대학 사회의 분위기와는 달리 학위 취득이나 보직에 연연하지 않았고 교수 생활 25년 동안 오로지 교수와 연구에 몰두할 수 있었다. 정년 뒤에도 동료 교수들의 정의로 하여 10년 가까이 대학 출장을 하게 되었다. 내 나름대로 허웅 스승님의 깊고도 넓은 교양과 우리나라에서만 아닌 국제적으로도 그 권위를 보유하고 계신 학문을 동경하면서 살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그토록 아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했다면 내 저서 가운데 다음 두 책을 들 수 있다. 그 두 책의 머리말을 다음에 간추려 국어학 연구의 보람으로 삼는다.

(1) 현대 국어의 조어법 연구(1996.9.20. 박이정출판사 펴냄, 1092쪽)

내가 국어학에 관심하여 공부를 시작하고부터 약 10년 동안은 저자·필자를 가리지 않고 눈에 띄는 대로 무작정 저서나 논문을 읽었다. 10년이 지나서 연륜이 쌓여 갈수록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를테면 선별해서 읽어야겠다는 깨침이었다. 그것은 최현배 스승님과 허웅 스승님의 저서와 논문을 읽으면서 깨닫게 된 수확이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이들의 저서나 논문을 읽는 일에는 아주 인색해질 수밖에 없었다. 나는 그때부터 학문하는 지름길로 들어섰고 한 우물만 파려고 애썼다.

허웅 스승님께서 <현대 국어의 조어법 연구> 과제를 주신 때가 지금으로부터 38년 전인 1964년이다. 나는 처음에는 그 주제에 따른 연구 분량이 벽찰 뿐만 아니라 아득하게만 여겨져서 엄두를 내지 못하고 망설였다. 그러나 스승님의 가르침에 기대어 연구해 보기로 마음을 굳혔다. 나는 그 당시에 서울 보성고등학교에 재직하고 있었다. 1964년 그 해에 스승님의 권유로 서울 대학교 대학원 언어학과 연구과정에 등록하여 스승님을 지도교수로 모시게 되었는데 스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조어법 연구의 자료는 여러 모로 참작해

볼 때, 한글학회 지은 <소사전>이 좋을 것 같다고 하셨다. 나는 그 때부터 스승님께서 선정해 주신 <소사전>에서 조어법 연구의 대상이 되는 낱말을 가려서 표시를 하고 그 낱말을 분류하기에 편리하도록 카드에 옮겼다. 그 작업만 꼬박 두 해가 걸렸다. 그 뒤 스승님의 연구실에서 큰 갈래의 분류를 하기 시작했다.

그 연구는 내가 1966년 인천교육대학으로 전근이 된 후에 정리하고 발표할 수 있는 연구의 좋은 계기였다. 1991년 정년 퇴임까지, 초등학교 교사들의 표준말 교육에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는 경기도 일원의 사투리 채집에 따른 23편의 논문과 함께, 조어법 논문 23편을 발표하였다. 조어법 논문은 그 뒤 4편을 더 보태어 모두 27편이다. 그 중 1편은 전체 체계에서 벗어나므로 제외하고 26편의 논문으로써 내용별로 묶어서 이 책을 내게 된 것이다.

한 편의 논문을 집필한 기간은 평균 한 해인데 까다로운 것은 두 해 반이나 걸렸다. 그야말로 느림보 걸음이었다. 그토록 오랜 세월이 걸쳐서 발표하였으므로 갈말(술어)의 사용이나 기술 체계의 일관성을 위해서 중복된 내용은 지우고 모자라는 것은 gaps 등 수정이나 개정의 과정을 겪었으나 미흡한 점을 면할 수가 없었다. 사실은 한 편의 논문이 정리될 때마다 미해결의 카드가 늘어나서 약 1,000장 가량은 그대로 둘 수밖에 없었다. 끝내 해결이 안 되면 연구 대상에 넣을 수 없으므로 쓰레기통에 넣어 버려야 하지마는 뒷날의 연구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현대 국어의 조어법 연구>에 손을 댄 이래, 건재 정인승 스승님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내가 명륜동에 있었을 때, 안암동에 계신 스승님 댁에 자주 전화를 걸어서 의문점을 속 시원하게 풀었다. 처음 전화 대화에서 하신 말씀이 “김 선생 그 연구는 아주 보람이 있는 연구입니다. 김 선생에게 만강의 사의를 표합니다.”라고 하시면서 질문에 대하여 성의껏 응해 주셨다. 의문스러운 것이 있을 때마다 염치도 없이 긴 시간에 걸쳐 스승님을 괴롭게 했다. 지금 생각하면 죄송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다. 그 밖에 여러분의 도움을 많이 입었으나 원고 분량 관계로 줄인다.

(2) 경기도 사투리 연구(2001.5.25. 박이정출판사 펴냄, 683쪽)

나는 내 고장의 말씨 버릇, 곧 사투리(특히 발음 문제) 때문에 국어 교사로서 표준말 교육에 거리낌이 있음을 알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다. 내가 부산 경남고교에서 서울 보성고교로 전근할 즈음에 강재호 스승님은 그 당시 보성고교에 와서 근무해 보라는 것과, 거기에 붙여 여러 가지 특혜를 베풀겠다고 하셨다. 나는 그 특혜를 받아 전근할 뜻은 추호도 없었다. 다만 스승님의 권유를 거절하기 어려웠으나 또 한 가지 내가 거절하게 된 이유를 보태면 나의 사투리 문제였다. 그래서 스승님께 솔직한 내 심정을 여쭙었더니, 사투리에 대한 생각은 국어 교사로서 양심이 있는 말이긴 하나 가르칠 대상이 기초를 다져야 할 초등학교도 아니고 중학교도 아니며 고등학교에서도 고3 학생을 맡아 주어야 할 사정이니 조금도 패념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 뒤 보성고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것은 동료 교사들 가운데 지방출신들이 의외로 많았다는 것이다. 6·25 동란 때 지방에 피란하여 그 곳에서 초등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다. 첫 시간 수업을 마치고 내가 한 말에서 모를 말이나 이상한 말은 없었느냐고 물어보고 솔직히 말해 달라고 했더니 “선생님의 말씀이야말로 표준말이며 정감이 든다.”는 대답이었다. 인사치레였을 것이다. 들어간 반마다 내 말에 대한 반응은 좋은 편이었다. 그러나 그대로 믿지는 않았다. 내 자신이 안고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었다.

5년 동안 보성고교에 재직하면서 서울 토박이로 몇 대를 살아 온 후손인 동료 교사들을 대상 삼아 서울 사투리 자료를 모아 보았다. 뜻밖에 서울 사투리가 많아서 “경주 돌이면 다 옥돌이냐!”고 하듯이 “서울말이면 다 표준말일 까!”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 뒤 인천교육대학에 전근하게 되어 그야말로 표준말을 철두철미 익혀야 할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지나 않을까 해서 염려스러웠다. 그래서 인천교육대학 근속 25년 동안 들어가는 반마다 강의 첫 시간에 표준 발음에 대하여 내 자신의 잘못된 말씨 버릇을 솔직하게 다 털어놓고 참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1970년부터 1993년까지 채집해서 발표한 24편의 글을 묶어서 이 책을 펴냈다. 24편의 글은 행정구역상의 경기도와 인천직할시 지역을 대상으로 채집한 사투리를 정리한 것이다. 단행본으로 엮을 생각을 한 것은 이 분야의 연구에 관심하는 이들의 권유에 용기를 얻었으며, 일찍이 내 지음인 <현대 국어의 조어법 연구>를 내어 준, 박찬익 사장이 흔쾌하게 맡아 주었기 때문이다. 출판계의 불황을 무릅쓰고 상업성도 없는 부피 있는 책을 두 번이나 내어 주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한편은 안쓰럽기만 했다. 그러나 2001년 문화관광부 우수 학술도서로 선정되어 내가 보답하려는 뜻을 담아 주었다.

나는 책이름을 <경기도 사투리> 또는 <경기도 사투리의 이모저모>로 하려고 했는데 방언학에 권위를 가진 전북대학교 최전승 교수(보성고교 제자)가 글의 내용이 연구가 분명하다면서 <경기도 사투리 연구>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그대로 따랐다. 그리고 최 교수가 연구에 바쁜 나날을 보내면서 이 책 맨 뒤에 사투리의 가나다라 차례로 각 지역을 표시하는 찾아보기를 정리해 주려고 제의했다. 그런 벅찬 작업을 부담 지우기에는 너무 가혹한 느낌마저 들어서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였다.

내가 <경기도 사투리 연구>에 대하여 먼저 말해 두고 싶은 것은 “1. 채집하게 된 동기 2. 채집해야 한다는 발의 3. 채집된 때와 곳 4. 채집 요령 5. 채집과정 6. 채집의 보람”인데 이 책 일러두기 다음에 실린 <향토문화 연구의 의의와 가치-경기도 사투리 채집을 중심으로->의 글에서 소상하게 밝혀 두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긴 세월을 걸쳐 채집하고 정리를 한, 인천교육대학 국어교육과 졸업생 특히 시종일관 도와 준 협성대학교 정동환 교수를 비롯하여 여러 제자와 국어교육과 지도 교수들, 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역대 학장과 총장들께 먼저 고마운 뜻을 표하며, 채집 현장의 자료 제보자와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게 보살펴 준 교육 동지들에 대한 고마운 뜻을 내 마음속 깊이 새겨 두고 있다.